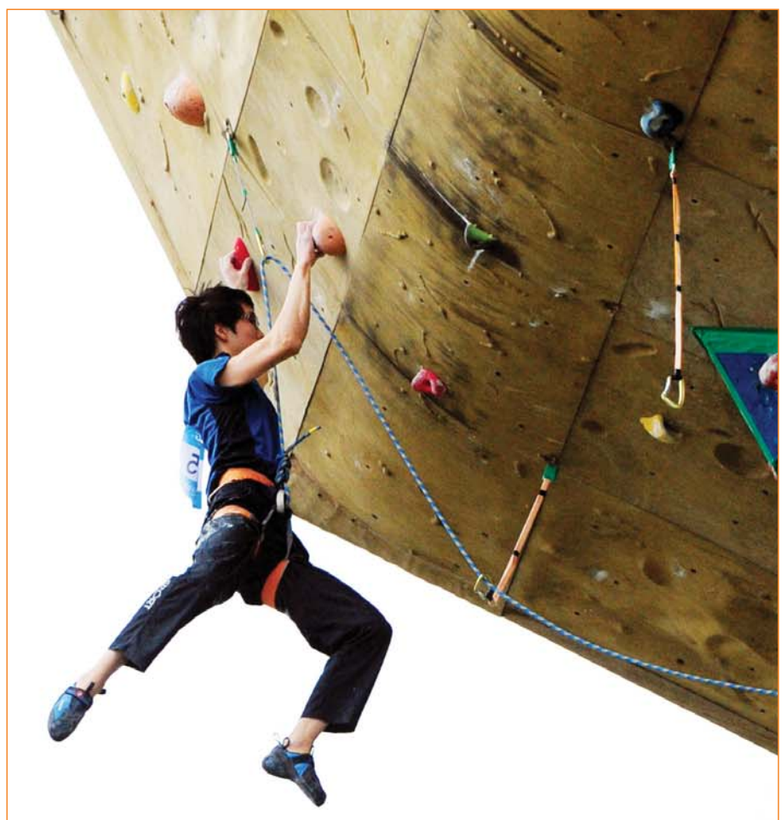
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암벽…도전…집념… '제24회 광주광역시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남자 일반부에서 2위를 차지한 조승운(광주전자공고2)군이 암벽 상단부 오버행(수직 이상의 경사를 지닌 채 지붕 모양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힘차게 오르고 있다.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호랑이, 잔인한 4월

윤석민 내고도 두산에 3-4 역전패 … 6승 10패로 7위

'선동열호'가 첫 테스트에서 6승10패의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KIA 타이거즈가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3차전에서 3-4 역전패를 당했다. 에이스 윤석민을 출격시키고도 뼈아픈 패를 기록하면서 KIA의 4월 성적은 6승10패가 됐다.

부임 첫달 5할 승률을 목표로 내걸었던 선 감독은 0.375의 승률를 기록하는 데 그치며 부상 위기를 넘는데 실패했다.

'위기의 4월' 마지막 경기는 KIA에게 치명적인 패로 남았다.

KIA 윤석민과의 대결에서 두산은 김승회를 선발로 내세웠다. 로테이션상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임태훈의 선발이 예상됐지만 김승회를 선택한 두산은 김동주 대신 이성열을 4번에 배치하고 최재훈·허경민 등의 신진급 선수들을 스타팅 멤버로 내세웠다.

KIA가 먼저 3점을 뽑아내며 승기를 가져오는 것 같았지만 선발 맞대결에서 윤석민이 판정패를 당했다.

5회 1사에서 손시헌에게 볼넷을 내준 윤석민은 최재훈을 삼진으로 잡아냈지만 허경민과 이종욱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1점을 내줬다.

이성열의 우전안타로 만들어진 6회 2사3루에서는 윤석민에게 적시타를 얻어맞으면서 조기 강판됐다. 5와3분의2이닝 6피안타 1볼넷 1탈삼진 2실점.

반면 김진욱 감독의 뚝심속에 초반 대량 실점의 위기를 넘긴 두산 선발 김승회는 자신의 최다 이닝인 7이닝의 투구로 퀄리티스타트를 끊었다.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지만 5피안타 3볼넷 4탈삼진 3실점의 투구로 팀의 1위 자리를 굳건히 했다.

윤석민의 2% 부족했던 피칭 속에 타선의 집중력도 부족했다. KIA는 2회초 최희섭의 2루타로 경기의 향방을 일찍 결정지을 수 있는 무사 2루의 찬스를 잡았다. 하지만 차일목의 중전안타로 1점을 만드는데 그쳤다.

연속 3안타가 터진 3회도 아쉬웠다. 선두타자 이용규의 좌전안타를 시작으로 안치홍·김원섭의 안타가 이어지면서 3-0. 이어진 무사 1루에서 최희섭이 볼넷을 골라낸 뒤 나지완의 희생번트를 더해 1사 2·3루가 됐지만 이번에도 후속타가 불발됐다.

두산의 뚝심에 밀린 KIA에게 승운도 따르지 않았다. 두산에게 5·6·7·8회 1점씩 내주면서 3-4로 승부가 뒤집힌 9회초, KIA의 선두타자로 나온 김상훈이 볼넷으로 출루를 하면서 공격의 불씨를 살렸다. 신종길이 번트 작전을 수행하지 못했지만 우전안타를 때려냈고, 그 사이 대주자로 들어간 윤완주가 3루까지 파고들었다. 하지만 두산 우익수 정수빈의 정확한 송구와 함께 아웃이 선언됐다. 이후 KIA의 테이블 세터 이용규와 안치홍이 범타로 물러나면서 경기는 KIA의 역전패로 끝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주저앉은 에이스 2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2 프로야구 KIA와 두산의 경기. 5회말 2사 KIA 선발 윤석민이 두산 이종욱이 친 파울볼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男 김한울·女 송한나래 우승

29일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 인공암벽경기장에서 열린 '제24회 광주광역시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남자 일반부에서 김한울(광주빛고을고2)군이 1위를 차지했다. 여자 일반부에서는 송한나래(한국외국어대1)양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사)대한산악연맹 광주시연맹(회장 최경주)이 주최하고 광주시와 아웃도어 전문브랜드 (주)콜핑(사장 박만영)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월드컵과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이 부여되는 '2012 코리안컵 시리즈 1차 대회'를 겸해 내로라하는 국내 스포츠클라이머 15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15m 높이의 인공암벽 코스를 사전 공개하지 않고 경기를 시작하면서 한 눈에 보고 오르는 온사이트 리딩(Onsight Leading) 방식의 난이도 경기로 치러졌다. 홀드를 이용해 선수들의 오름짓을 어렵게 설계한 경기벽을 정해진 시간 내에 높이 올라간 선수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남자 일반부에서는 김 군에 이어 조승운(광주전자공고2)군이 2위, 이동건(서울숭실대)씨가 3위에 올랐고, 여자 일반부에선 김솔아(서울충현고3)양이 2위, 정운화(43·서울쿠드클라이밍)씨가 3위를 각각 차지했다.

국내 암벽등반가들의 축제인 이번 대회는 남녀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장년부 등 5개 종별로 나눠 치러졌고, 부문별 입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및 상품, 경기력향상금이 지급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복이는 광주의 '키다리 아저씨'

10경기 3골2도움 공격 첨병
도움 주는 동료엔 시계 선물

광주 FC 복이

'복덩이' 복이가 광주의 키다리 아저씨가 됐다.

광주 FC는 올 시즌 201㎝의 K리그 최장신 선수 복이를 영입하면서 공격 루트에 변화를 줬다. 광주의 새 전력 복이는 올 시즌 10경기 전경기에 나서 3골2도움을 기록하며 팀 순위싸움의 중심에 서 있다.

큰 키로 제공권을 장악한 복이는 분주하게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상대 수비진을 괴롭히고 있다. 복이가 중앙에 든든하게 버텨주면서 광주의 공격에도 활로가 열렸다. '복이 효과'가 더해지면서 광주는 올 시즌 10경기에서 15골을 터트리며 팀 득점 3위를 달리고 있다.

넉넉한 활약으로 광주 공격에 힘을 싣고 있는 복이는 그라운드 밖에서도 넉넉한 인심을 과시하며 광주의 '키다리 아저씨'로 통한다.

광주의 훈훈한 분위기에 반해 유럽 무대를 마다하고 한국에 둥지를 튼 복이는 선수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면서 스스럼없이 지갑을 열고 있다. 원정경기가 끝난 후 휴게소에서 선수단 간식 담당을 자처하고 있는 복이는 지난주에는 통큰 시계 선물까지 내놓았다.

지난 22일 성남과의 경기에서 머리로 두 골을 만들었던 복이는 자신의 골에 도움을 준 김수범과 주앙파울로에게 감사의 의미로 고급 시계를 선물했다. 복이는 앞으로도 도움을 주는 선수에게 시계 선물을 하겠다는 공언까지 했다.

하지만 27일 전북 현대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시계의 주인공이 탄생하지는 못했다. 이날 복이는 두 차례 머리와 발로 슈팅을 날리며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공은 아슬하게 골대를 비켜가고 골키퍼 최은성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

팀은 김은선과 이승기가 각각 득점과 도움 2개씩을 기록했지만 1골2도움으로 맹활약한 전북 드로겟의 공세에 밀리면서 2-5로 패를 당했다.

전북과의 경기에서 열리지 못한 복이의 선물 보따리는 내달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대구와의 11라운드 경기를 기다리고 있다.

/전주=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투르 드 코리아 2012

박성백 종합우승

박성백(KSPO)이 투르 드 코리아 2012 종합우승을 이뤘다.

6구간 우승으로 개인종합 1위에 올랐던 박성백은 29일 여주 이포보에서 하남 미사리 경정공원까지 47.3km 구간에서도 55분44초에 선두그룹과 함께 골인, 총 21시간3분33초의 기록으로 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2007년 투르 드 코리아 초대 대회 챔피언인 박성백은 이로써 대회 최초로 두 차례 우승을 기록했다.

칸들라리오 알렉산더(OPT)와 리체제 막시밀리아노(팀 니포)는 3초 차로 각각 2, 3위에 올랐다.

전날 경주에서 20시간7분49초로 산악왕 챔피언 타이틀을 확정했던 박성백은 종합 12점으로 대회 산악왕에도 등극했다.

팀 종합 우승은 63시간11분38초의 기록으로 미국의 OPT가 가져갔다.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 2012'는 지난 22일 막을 올렸다. 인천~서울, 부여~광주, 여주-하남 등 총 8구간(1천88.8㎞)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매 경주에서 짧게는 47㎞(여주-하남), 길게는 200㎞(부여-광주)를 달렸다.

/연합뉴스

섬여행
1박2일 홍도/흑산도 ₩169,000원~
2박3일 울릉도/독도
5월 3일,17일 ₩365,000원~
5월11일,25일 ₩385,000원~
1박2일 한라산등반 · 올레길 블루나래호 ₩120,000원~
1박2일 제주도 블루나래호 ₩140,000원~
2박3일 제주도 블루나래호 ₩160,000원~
1박2일 보길도/청산도 ₩160,000원~

해외여행
2일 대마도 크루즈 ₩239,000원~
5일 후쿠오카 크루즈 ₩580,000원~
5일 태항산/태산 KE ₩990,000원~
6일 태항산 위동훼리(매주목) ₩650,000원~
4일 청 도 위동훼리(매주토) ₩330,000원~
5일 청도/장보고유적지 위동훼리(매주목) ₩450,000원~
5일 청도/태산/곡부 위동훼리(매주화) ₩460,000원~
5일 장가계 MU ₩1,200,000원~
4일 장가계 MU ₩1,100,000원~
4일 황산 MU ₩670,000원~